

주한 외국인 대상
열린통일포럼

기 조 연 설

- 일 시 : 2004. 5. 12(수) 14:00-
- 장 소 : 타워호텔

통일부장관
정 세 현

1. 인 사

존경하는 주한 대사님들을 비롯한 주한 외국인 여러분,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모국과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문제,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개성공단 공사 착수 등으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동시에 한국정부는 여러분들께 이를 설명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제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오늘과 같은 기회를 만들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계기시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 장성급 회담 개최 합의 >

우선 지난주에 개최된 제14차 장관급회담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담의 목표로 설정했던 몇 가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을 조만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제·사회문화 분야 협력이 군사 분야 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무엇보다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 혹은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류협력이 평화를 끌어오기도 하지만,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남북관계가 한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 북한 핵문제 해결 촉구 >

장성급회담 수용여부를 놓고 씨름을 하다가 회담이 결렬될 뻔 했던 관계로 북한 핵문제 관련 조항을 합의문에 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개최될 제3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됩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인내심과 신축성을 가지고 6자회담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실무회담에서 보다 진전되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남북간 대화채널을 통해서도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북핵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와 경제불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핵 risk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우리의 수출액도 1,938억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남북관계의 안정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담 평가 >

이번 제14차 장관급회담은 내가 수석대표를 맡았던 여덟 번의 장관급 회담 중 제일 힘든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든 와중에도 남북 화해협력의 추세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회담 종료 마지막 순간에 태도를 변경하여 장성급 군사회담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우리의 협력과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꾸준한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과정에서 남북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외무역액의 1/3 규모를 남북교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의 반 이상을 메워주는 셈입니다.

북한에게 남북관계는 그 어떤 대외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의 「현주소」라는 것을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개성공단 개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지금 개성에서 진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우리의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DMZ를 넘나드는 경제사업이라는 점에서 「peace building proje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북한이 핵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예방함은 물론 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 기업들도 단계적으로 입주하여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북한의 변화

지난 4월 용천사고는 같은 동포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단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용천사고와 관련하여 북한의 어려운 내부 상황이 좀 더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외부의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이제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상업활동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급제를 통한 상품 유통보다 시장기능을 통한 상품 유통의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실리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증가되고 우리의 인도물자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우리로서는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화의 정도를 놓고 볼 때도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4. 5.13자가 북한 주제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말을 빌려 지적하듯이 그 추세와 방향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변화」 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군사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을 놓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견해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치 혹은 군사 분야의 변화는 마지막으로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국이 4대 현대화를 위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당시 주변국들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변화에 대해 반신반의 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공산당 영도의 간판은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군대도 줄이고 인민해방전쟁의 개념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공산당에 자본가들을 입당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의 변화가 정치·군사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 분야의 변화가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고, 중국적으로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보다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중국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의 실패 사례를 피하면서 성공사례를 압축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전 망

물론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군사분야의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전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북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핵문제 등 WMD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의 균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변화를 이어나가 먼저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변영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알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